일본 축산시찰

이길환 · 팀장
한우개량부

본회는 한우사육농가 및 관련종사자 42명과 함께 지난 6월25일부터 29일까지 4박5일 동안 일본 혼슈현의 후쿠오카, 구마모토, 가고시마지역의 축산에 대하여 시찰하였다.

이번 축산시찰단은 국내와 같이 소고기에서 마블링이 우수한 고기를 좋아하고 마블링이 우수한 것이 비싼 가격에 거래되며, 또 육량보다는 육질을 중시하는 육류문화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축산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미 개량에 있어 일정 수준에 올라있는 가까운 일본국을 선진지로 결정하여 축산시찰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시찰단은 일본지역에서도 번식우 관리가 우수한 번식농가와 비육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비육농가를 선정하여 번식기술과 비육기술에 대하여 배우고자 하였으며 일본에서는 가축의 분뇨를 어떤 과정에 의하여 수집, 발효, 가공, 포장,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알고자 하였다. 또 송아지 경매시장은 어떻게 출품우가 결정되며, 경매는 어떻게 하는지, 경매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깊게 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일본 혼슈현의 후쿠오카, 구마모토, 가고시마 지역을 시찰하게 되었다.

일본지역 축산시찰을 하기 위하여 시찰단은 인천공항신청사 H집결구 앞에 오전 6시에 모이기 시작하여 6시30분까지 전원이 모여서 출국에 필요한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오전 8시10분에 탑승하여 후쿠오카 국제공항에 오전 9시30분정도에 도착하였다.

도착당시 후쿠오카의 날씨는 조금은 더운 날씨였으나 시찰하기에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우리는 일본에 입국수속을 하고 미리 준비한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가장 먼저 후쿠오카에 위치한 축산분뇨처리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다.

아그리센터 시찰(축산분뇨시설)

● 후쿠오카 지역의 축산현황에 대하여

후쿠오카지역의 사육농가수는 121농가에서 총 15,200두의 비육우를 사육하고 있는데 사육규모는 전국에서 3번째 많은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비육농가에서 비육용 송아지 구입은 지역의 낙농경영과에서 번식농가와 조직적으로 연계하여 비육용 송아지를 확보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성적이 우수한 개체는 수정란이식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송아지를 공급하는데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비육우의 비육기간 단축에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체의 능력에 따른 효율적인 비육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소고기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있었다.

후쿠오카 지역에서의 일반적인 거래현황을 보면 송아지 구입시 개월령은 생후 8개월령으로 구입시 체중은 약 240kg 정도이며, 비육우의 출하월령은 평균 28개월령에 출하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소비자의 신뢰구축을 위한 "얼굴이 보이는 관계 만들기"라는 테마로 생산자와 유통업자, 소비자 등이 서로 상호 신뢰를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국산 쇠고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생산기술 및 사육기술 향상을 통한 고품질 쇠고기 생산을 유도하여 생산이력시스템을 활용한 쇠고기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 아그리센터(축산분뇨시설)

시찰단 일행은 일본에 입국하여 후쿠오카 지역에 있는 축산분뇨 센터를 견학하기로 하였다. 이곳 후쿠오카지역은 전국에서도 도쿄, 오사카 다음으로 비육우 사육규모가 큰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는 어떻게 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장의 시설과 처리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축산분뇨처리센터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그림 1. 발효전 분뇨 1차 혼합

우리 일행은 후쿠오카시내에서 버스로 한 5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센터를 방문하였는데 이곳은 산속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주위에 농가도 많지 않은 전형적인 시골에 위치한 분뇨처리센터였다. 안내는 분뇨센터의 영농부 영농기획과 가미가와 차장이 안내를 하여 주었으며 이날 우리가 방문을 한다는 말을 듣고 후쿠오카현 이이츠카지역농업개량보급센터 농축산 보급과 축산계 기술주임 카츠야씨도 현장에 나와 안내를 도와주었다.

JA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분뇨시설 정식명칭은 아그리센터이며 2005년도에 국가에서 지원하고 관련농가가 자금을 출자하여 만들어진 센터로서 비용은 한화로 4억3천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하였다.

이 분뇨센터는 토양에 대한 안전 안심을 생각하며 〈토지를 되살리자〉라는 모토로 건설되었다. 이 센터는 후쿠오카지역의 농가중 소와 관련되어 있는 25농가의 분뇨만을 수거하고 있었으며, 분뇨는 우분만을 이용하여 우분 1톤과 기타 2톤을 혼합하여 발효하고 있었는데 다른 종류의 분을 혼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다른 성분의 분뇨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분만을 이용하여 생산된 퇴비가 토양을 되살리는데 가장 이롭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우분 1톤과 기타 혼합물 2톤은 발효가 끝난 퇴비와 왕겨, 종이, 톱밥 등을 혼합하여 발효하고 있었으며, 우분을 이용하여 퇴비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5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우분을 발효시에는 특별한 발효균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으며 발효시에 식용유 찌꺼기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발효 후 퇴비의 완제품은 수분함량이 약 40% 정도에 달한다고 하였다.

참여농가는 총 25농가로 이중 낙농농가가 16농가이며, 화우농가는 9농가가 이 센터에서 우분을 처리하고 있었다. 기타 나머지 농가는 자체적으로 우분을 처리하거나 또는 다른 처리장을 이용하고 있었다.

센터에서는 우분은 일일 20톤을 수거하며 연 6,000톤의 우분을 처리하고 있었다. 우분을 수거할 때 농가에서는 수거비용으로 톤당 약 1,350엔의 비용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수거하여 만들어진 퇴비는 15kg 단위로 포장을 하거나 대단위로 포장을 하여 판매를 실시하는데 포장단위 15kg당 300엔을 받고 쌀농사, 야채농사를 짓는 경종농업에 판매를 하고 있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퇴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쌀로 와자아리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 쌀)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매가 잘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노력이 축산과 환경과 경종농업이 동시에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그림 2. 포장된 퇴비(수분40%)

현재 축산분뇨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곳에서도 축분의 수분처리와 악취에 의한 환경문제가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하였다.

아그리센터를 방문하여 축산분뇨 처리상황과 문제점을 보고 상황은 한국과 별 차이는 없으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여 나가느냐가 문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만 살펴보면 골칫거리이지만 잘 이용하면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도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발전기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스노끼목장 방문(번식목장)

오전에 축산분뇨센터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후쿠오카 현내에 있는 구스노끼목장을 방문하였는데 이 목장은 후쿠오카 지역에서도 사육기술이 가장 앞선 농가라고 하였다.

구스노끼목장은 홀스타인종 131두 사육하고 있는데 이중에 경산우가 80두, 미경산 및 육성우가 각각 25, 26두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F1 교잡종도 126두를 사육하고 있었다.

축사 및 경작지 면적은 16ha이며 야초를 채초하기 위한 부지가 약 40ha 정도 소유하고 있고 야초는 채취하여 조사료로 공급하고 있었다.

인력은 가족이 5명(부(63세), 모(58세), 처(34세), 아들(3세), 본인(33세))이며 종업원 3명(남 2명, 여 1명), 연수생 1명, 백부 1명(73세) 등 총 8명이 홀스타인과 화우 교잡종을 관리하고 있었다. 특히 가

그림 3. 어미소와 분리후 포유중인 송아지

족 노동력 중에 아버지는 소똥처리와 목초수확을, 어머니는 가사 · 경리 · 목초수확의 작업을, 부인은 육아를, 남자 종업원과 연수생, 백부는 우사관리 및 우군관리를, 여자 종업원은 송아지 포유작업에 각각 분담하고 있었다.

우사관리시간은 착유를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로 오전 4:30~8:30과 14:30~19:30으로 2회에 나누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젖소의 사육형태를 살펴보면 배합사료는 자동급여기를 이용하여 일일 8회로 급여하고 목초는 일일 3회에 거쳐 급여하며, 기타 구입 수단건초, 비트펄프 등을 급여하고 있었다. 야초를 채취하여 급여하는데 품질이 우수한 것은 홀스타인 젖소에 급여하고 나머지는 F1화우에 급여한다고 하였다.

농장을 방문하였을 때가 오후 2시30분경 이었는데 소들의 먹이통에는 아직도 건초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소의 상태는 살찌지 않은 약간은 마른 듯한 상태를 나타나고 있었다. 농장주의 말을 들으면 수정하기 이전에는 하루에 1kg의 농후사료를 급여하지만 수정 후에는 2kg의 사료를 급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송아지는 한눈에 보기에도 충분한 조사료를 급여한 후 농후사료를 적당히 급여한 약간은 살이 찐 듯한 느낌을 주는 정도로 사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또한 F1 교잡종은 1일 2회에 걸쳐 농후사료와 조사료를 급여하고 있었다.

F1종에 대한 관리방법은 분만후 3일까지는 어미소와 동거 후 4일째 되는 시점에서 어미소와 송아지를 분리하여 생후 10일까지 포유병을 이용하여 우유를 급여한 후 10일 이후에는 자동급여기를 이용하여 급여를 실시한 후, 판매용 송아지는 4개월이내에 시장에 판매하고 자가 보유 암소는 3개월에 우유급여를 중단한다고 하였다.

생후 100일령의 경우를 살펴보면 수송아지의 평균체중은 130kg이며, 암송아지의 평균체중은 110kg 정도 나간다. 또한 판매가격은 수송아지가 40만엔, 암송아지는 약 30만엔에 팔리고 있다고 하며, 송아지는 거의 대부분 판매하고 있다고 하였다.

송아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외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혈통을 중요시 하고 있었으며 특히 암소는 수소보다 더욱 혈통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농장에서는 개체별로 혈통등록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장래에 능력을 예측하기도 한다고 한다. 번식이 끝난 개체는 비육하여 출하하는데 이 농장의 평균 산차는 7~8산차이며, 이 개체를 비육하면 일본에서 최고등급인 A-5등급이 10~20%정도 나온다고 하였다.

이 농장의 특성은 F1종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면서 노동력은 가족 노동력과 일부 고용노동력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젖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외부노동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이 농가에서는 송아지에게 여러 가지의 송아지 사료를 급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송아지가 원하는 사료를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한다. 이곳 구스노끼 농장주 용대씨는 소 사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를 물었더니 다른 것은 몰라도 조사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이 농장에서는 많은 건초를 하천(40ha)등의 땅에서 건초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화우산업의 전망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농장주는 마블링만 제대로 된다면 안정된 수입이 보장될 것이며, 화우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고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미치코시백화점 방문

일본지역에서 최초의 백화점인 미치코시 백화점을 오후 5시가 넘어서 방문하게 되었다. 백화점 안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많은 고객들이 물건을 구입하느라 분주하였으며 화우고기를 판매하는 판매점은 백화점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화우고기판매점을 방문하여 살펴보니 백화점에서는 고베육과 일반육을 동시에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그 가격차이도 엄청난 가격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특히 고베육중에는 100g에 15,200엔을 하는 화우고기가 있었으며, 일반 쇠고기 중 가장 저렴한 것은 1,500엔짜리 화우고기가 있었다. 특히 15,200엔 하는 고베육은 고기도 우수하지만 믿을 수 있고 안전하다는 고베육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여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시찰단 일행은 백화점에서 화우고기를 구경하고 일행 중 한명이 4,000엔짜리 고베육을 30,000엔 어치를 구입하여 일행전체가 저녁을 먹으면서 한 조각씩 맛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시찰단 전체가 그 유명한 고베육을 맛볼 수 있었다. 고베육을 시식하여 본 결과 우리 한우도 고베육 못지않은 우수한 쇠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4. 100g당 6,000엔 하는 고베육

아소산 방목목장 견학

아소산 방목목장은 규슈지역 중에서도 규슈의 중간지역인 구마모토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이곳 아소산은 화산이 폭발하여 생긴 분지였다. 시찰단 일행은 아소산에 오르면서 차량의 좌우측에 펼쳐진 광활한 초지에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산에 펼쳐진 억새풀은 양축농가의 눈에는 소가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조사료이기 때문에 한우 사육농가를 설레이게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눈으로 보아서 보이는 끝까지 초지로 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은 실로 대단한 장관이었으며, 우리 양축가 에게는 그저 부러움의 대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아소산은 우리남한 육지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인 지리산과 해발고지가 거의 비슷한 1,500m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이 고지대에 초지가 펼쳐져 있는 것 이었다. 이곳 아소산은 가을에 억새 태우기가 일본 전역에서도 유명한 곳이라고 하였다. 일본에서는 화산에서 분출하는 마그마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지열발전소가 7개가 있

그림 5. 아소산에 펼쳐진 넓은 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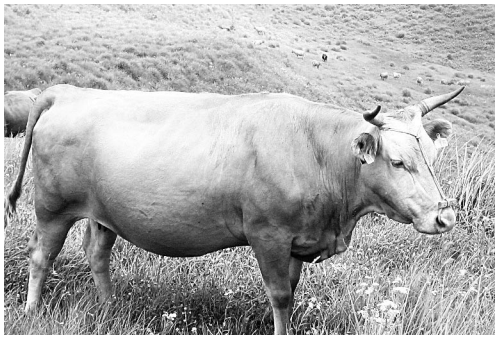

그림 6. 아소산에 방목중인 소의 모습

는데 이곳에도 지열발전소가 있다고 하였다.

아소산의 넓이는 대략 50,000~60,000ha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실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이런 곳에서 축산을 하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생각하면서 넓은 초지에 있는 화우를 찾아가기 시작하여 한참을 버스로 이동하여 산지의 한 중턱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한 무리의 소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아소산을 소개하여 줄 사람을 만났는데 이곳 아소산에서 직접 방목을 하고 있으며 소를 사육하면서 생산된 소를 도축하여 음식점도 운영하고 있는 오노 겟츠야라는 농부이자 음식점 사장인 사람의 안내를 받게 되었다. 오노사장은 아소산에서 번식도하며, 평지에서는 번식우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가지고 내려와서 비육하여 이 고기로 음식점도 운영하는 실로 생산에서 유통 판매를 전부하는 사람이었다. 오노사장은 아소산에서 번식우를 대부분 관리하고 아내와 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아들은 평지에서 비육을 주로 담당하면서 집안의 경종농업도 하고 있었다. 오노사장의 말에 의하면 이곳 아소산에는 20년 전만하여도 아소산에는 소를 방목하는 양축하는 농가가 많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 넓은 초지에 6농가가 방목하고 있으며 그 방목두수는 대략 150두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넓은 초지가 있는데 왜 6농가에서 150두만을 방목하는가를 물었더니 아소산은 해발이 기본1,000m이상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너무 많은 눈이 오기 때문에 겨울철에 건초를 공급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사람조차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줄어들고 있으며 사육두수가 감소하는 주된 이유라고 하였다. 오노사장이 멀리 있는 소떼를 부르자 몇 마리의 소들이 오노사장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시찰단 쪽으로 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시찰단 쪽으로 오고 있는 소는 거의 모두 자기 소유의 소라고 하였으며 자기 소유의 소는 등에 낙인을 찍어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6명의 주인이 부르면 거의 자기 소유의 소만이 주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온다고 하였다. 방목되는 소들은 외부기생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생충 방제를 위하여 등에 약을 뿌려서 기생충 방제에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곳에서 방목되어 풀을 뜯고 있는 소들은 모두 좋은 풀을 마음껏 먹어서 그런지 비교적 많이 비만된 상태였다. 방목된 소들은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 계곡에서 자연적으로 흐르고 있는 물을 이용하여 급수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였다. 경사가

없는 지역의 야초는 채취하여 겨울철에 먹이로 이용하기 위하여 건초나 사일리지를 만들어 이용하고 경사가 있는 지역은 소가 풀을 뜯도록 한다고 한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우는 흑모화우와 갈모화우가 있는데 흑모화우가 갈모화우보다 약 20% 정도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곳 아소산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과 산지에서 목초를 만드는 모습을 살펴본 후 오노씨가 경영하고 있는 음식점으로 향하여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다. 오노씨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은 마을의 한쪽구석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크기는 크지 않으나 아담하고 정감이 가는 그런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식당에 들어서자 부인과 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는 갈모화우가 맛있는 이유와 본인이 직접 생산하여 판매한다는 문구를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곳 식당은 한달에 1두를 도축하여 1두 판매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너무 많은 소를 사육하려고 하지도 않고 적당한 두수를 사육하여 식당에서 모두 소비하고 있는 전형적인 공급과 판매를 실시하는 그런 농장이었다. 농장에서는 갈모화우의 고기를 120g 당 약 3,000엔에 판매하고 있었으며 한화로는 약 24,000원씩 판매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갈모화우를 먹어 볼 수 있었다. 이곳 식당에서 먹어본 갈모화우고기는 우리 한우와 큰 차이는 없었으나 우리 한우고기가 더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육농장

오노씨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우리는 오노씨의 아들이 경영하고 있는 비육농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비육농장은 마을의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사육규모는 분만대기우와 어린송아지를 포함하여 약 30여두에 불과한 조그마한 비육농장 이었다. 이 농장은 마을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파리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 하였으나 파리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 이유는 소가 분뇨를 배출하면 배출된 분뇨를 모은 다음에 비닐을 이용하여 덮어 놓으면 그 속에 있는 파리의 유충이 분뇨의 발효열에 의하여 죽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곳의 비육규모는 작은 편이나 개체별로 사육이 비교적 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림 7. 비육말기(27개월령)의 거세우

비육우를 살펴보면 비육단계에 따라 우군이 관리되고 있었으며 이곳에서는 곧 출하를 앞둔 비육우 1두가 사육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출하를 앞둔 비육우는 육안으로 시찰단이 보기에는 체중이 약 850~900kg 정도 나갈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 비육우는 비육이 거의 다 이루어진 개체라서 그런지 엉덩이 부위에도 무척 많은 엉덩이 살이 붙어 있었으며 넓적다리도 두께와 폭이 충분히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었다. 한편 이 비육우는 많은 사람이 접근하여도 그리 신경쓰지 않고

있었으며, 소가 놀라거나 뛰는 일은 없었다. 일반적으로 흑모화우 송아지는 생후 4일령에 조기이유를 실시하고 갈모화우는 약 4~5개월령에 이유를 실시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갈모화우는 흑모화우에 비하여 유량이 많고 자연적으로 어미 밑에서 잘 자라기 때문이며 갈모화우의 사육비율은 1% 미만인데 갈모화우를 조기이유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흑모화우를 조기에 이유하는 것은 발정이 미약하고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이유하여 분만간격을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흑모화우는 어미소와 분리 이후에는 분유를 급여하고 분유급여 후에는 분유급여와 동시에 배합사료를 급여하여 섭취량을 증가시킨다. 비육송아지의 99.7%는 거세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세시기는 일반적으로 생후 약 3~4개월령에 실시하고 거세방법은 무혈거세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때 무혈거세는 정관을 압착하여 실시하는 거세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송아지에서부터 관리된 흑모화우 비육우는 생후 30개월령에 출하되는데 그 출하체중은 약 670~680kg 정도가 된다고 한다. 또한 비육된 소가 생체중 700kg이 넘으면 지육율이 약 64% 정도 되어 도체중이 500kg이 넘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 한우가 일반적인 지육율이 59%~60%정도인 것에 비하여 무척 높은 것이며, 도체중도 390kg에 비하여 무척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생산된 비육우는 한달에 1두를 도축하여 어머니가 경영하고 있는 식당으로 납품되어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우리는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화우산업의 전망에 대하여 물었더니 오노씨는 화우를 사육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화우고기를 찾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화우산업은 지속되어야 하며 화우산업은 다른 수입육이 많이 들어와도 화우를 찾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발전가능성이 있고 미래가 밝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자기는 모든 소를 직접 생산하여 가족이 경영하고 있는 식당에 납품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장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한 사육두수를 증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한달에 1두를 판매하여 판매하는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물었더니 그것은 자기만의 비밀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번식농장 방문(가고시마지역)

시찰단 일행은 구마모토에서 가고시마로 이동하여 가고시마 지역에서의 화우 번식농가를 견학하게 되었다. 우리가 방문한 번식목장은 가고시마에서도 규모가 무척 큰 쪽에 속하는 수왕(秀王)목장 이었다.

시찰단을 맞이한 사람은 이 목장의 사장 아들이자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총 책임자가 우리를 환영하여 주었다. 이 목장의 사장은 잠시 농장을 비운 상태라서 농장의 총괄 운영을 하고 있는 아들의 안내를 받았는데 아들 나이는 올해로 23살이며 목장경력은 무려 15년이나 된다고 하였다. 이 사람은 8살 때부터 다른 목장에 가서 목장 일을 배우고 들어와서 목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문한 농장은 제1농장으로 이곳에만 사육되고 있는 화우가 285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런 농장 3개를 가지고 있어서 총 850두의 번식우만을 사육하고 있는 대단위 농장이었다. 3개의 농장에서 850두의 번식우를 사육하는데 총 인원은 10명이

관리하므로 1인당 관리두수는 85두 정도가 되는 것이었다.이 농장의 번식간격은 평균 400일인데 1년에 1산을 할 수 있도록 번식간격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하였다. 번식우 교체시 후대축을 선발하여 사육하여야 하는데 가장 큰 선발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목장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혈통이며 그 다음은 자기가 15년 경력을 쌓으면서 배운 외모에 의한 선발이라면서 그는 생시의 외모에 따라 송아지를 선발한다고 하였다.이 농장의 임신기간은 약 285일인데 옛날에 비하여 임신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경산우 중에 번식이 어려운 개체는 호르몬 주사를 실시하거나 발정주사제를 처치하여 번식하려고 노력하며 그래도 안 되면 본인이 직접 수정을 실시하여 수정이 안 되면 그 번식우는 출하를 한다고 하였다. 송아지의 출하월령은 약 8~10개월령에 실시하며 이때의 체중은 암송아지는 280kg 정도이며, 수송아지는 300kg 정도로 각각 45만엔과 52만엔 정도의 가격을 받고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송아지에 대한 혈통등록은 절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농장에서 태어나는 송아지의 평균 생시체중은 약 30kg에 달하며, 송아지와 어미의 분리는 4~5일령에 실시하는데 어미소와 송아지를 1주일 이상 같이 붙여 놓으면 절대 우수한 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렇게 어미소와 분리하여 기르는 송아지는 처음에는 하루에 약 3리터의 분유를 8회~10회 정도로 나누어서 급여를 실시하면서 농후사료를 급여하고 송아지가 자라면서 먹는 분유의 양을 25일~30일에 최대 5리터까지 증가시킨 후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분유의 양을 줄여서 생후 60일령에 2리터까지 줄인 후 분유급여를 중지한다고 하였다.

그림 8. 어미와 분리중인 생후 4일령 송아지

송아지 방에는 조사료로 급여하는 건초가 깔짚으로 깔려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조사료를 깔짚으로 깔아놓는 것은 보온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조사료를 깔짚으로 깔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 목장의 번식우는 발목에 링을 부착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번식우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발정을 체크하기 위하여 링을 부착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번식우는 발정이 잘 오게 하기 위하여 비타민 A와 E를 급여한다고 하였다.

번식우의 조사료 급여량은 평균 5~6kg을 하루에 급여하고 농후사료는 임신 전에 1kg을 급여하고 임신 후에는 2.5~3kg을 급여하여 송아지를 생산한다고 한다. 한편 이 목장의 번식우의 평균 산차는 10산 정도인데 번식이 끝난 개체는 농장에서 비육하지 않고 시장에 출하하여 판매한다고 한다. 그러면 번식우를 구입한 구입농가는 비육을 하거나 아니면 상태에 따라서 비육하지 않고 직접 도축을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화우산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젊은 사장은 화우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 산업이라고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화우를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으로 무엇이든지 된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될까하는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자신은 누구에게도 절대로 지지 않을 자신감이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비육이 번식보다 돈이 더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번식이 더 많은 돈을 벌어 준다고 하였다.

화우산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젊은 사장은 무엇보다도 종업원의 관리가 가장 어렵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소라는 동물은 애정 없이 먹이를 주는 것과 애정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직원이 소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의 성적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소는 관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관심과 정성을 가지고 보는가에 따라서 수익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소는 관리자가 대하는 정성만큼의 보답해 준다고 하였다. 젊은 사장은 지난 15년간 소를 사육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는 옛날에 발병한 구제역이 가장 무섭고 어려운 질병이며 다른 것은 무엇이든지 자신 있다고 하였다.

송아지 경매시장

송아지 경매시장 안내는 구마모토 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까라베씨가 안내해 주었다. 다까라베씨는 현재 국가에서 지급되는 농가의 보조금 집행과 농기계보조등의 보조금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돈이 1년에 30억엔에 달하며 그 돈을 집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가소시마에는 경매시장이 6개가 있는데 우리가 견학하고자 하는 곳이 가장 역사가 깊고 큰 규모의 경매장이라고 하였으며 가고시마 시내에서 경매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축사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축사의 허가 조건에는 축산을 하려는 사람의 장래계획과 면적을 검토하며 현지 실사 확인 후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가고시마의 축산의 위치는 농업 생산규모의 55%정도를 차지하며, 가고시마 조례에 의하면 송아지를 생산하여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생후 9개월이내의 송아지는 반드시 경매장을 통하여 거래를 하여야 하며 9개월 이상의 개체들은 농가끼리도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효고현에서는 100% 가축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소 폐사시 가격의 75%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과 같은 국가 전염병은 국가에서 100% 보상을 하여 준다고 하였다. 또한 농가별로 거래가격이 차이가 있는가에 대하여 물어 보았더니 우수한 혈통을 많이 보유한 농가는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하여 평균 약 15만엔 정도의 송아지 가격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송아지의 평균 거래가격이 45만엔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큰 가격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난 5월에 이루어진 경매에서는 최고가격이 무려 350만엔짜리 암송아지가 나왔는데 그것은 이전에 도축한 오빠소가 매우 우수한 성적을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태어나기 이전에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태어난 다음에는 언제 출하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출하신청을 출하하기 1~2개월 전에 전농에 신청하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데 경매를 위하여 현지심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송아지 가격에 대한 내정가격

그림 9. 경매 대기중인 흑모화우

은 없다고 하였다. 특히 송아지 생산자가 가격이 부족하다면 판매를 위한 경매는 없었던 것으로 처리된다고 하였다. 송아지 판매 후 나타나는 질병이나 분쟁은 100% 생산농가에서 책임을 지며 구입 후 구매자의 관리에 의한 것은 구매자가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반이 구성되어 분쟁을 해결한다고 하였다.

【경매명부의 구성】

다음은 경매장에서 실시되는 경매에 출장하는 개체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경매 참여자들로 하여금 구매의 지표를 제공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표지 : 표지에는 금번의 경매일정과 출품두수를 안내
- 금번 경매일정 : 2007년 6월25일(월)~28일(목), 4일간
- 출장두수 : 1,672두(400두/일)

○표지 안쪽 : 차기의 출장두수 및 경매일을 안내
- 다음회 경매시장 개최일 2007년 7월24일(화)~26일(목), 3일간
- 출장예정두수 1,650두
- 경매시장개시시간 : 매일 9시 30분

○1페이지 : 경매장의 약도표시

○2페이지 : 경매명부를 보는 요령에 대하여 설명

〈명부의 표시에 대하여〉

대 상	표 시	조 건
1. 군 송아지 표시 품평회 소	최우수	군 송아지 표시품평회에서 최우수 소일 것
	우수	군 송아지 표시품평회에서 우수 소일 것
2. 캬돌센터 송아지	※	캬돌센터에서 육성된 것

〈육종가 표시 일부 개정에 대하여〉

육종가의 H표시에는 암송아지의 지방교잡의 기대육종가 및 어미 기대육종가의 1.5이상(BMS7~8)인 것에 대해서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는 지방교잡에 있어서는 A, B, C로 구분하였으나 거세와 암소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는데 지방교잡의 A는 거세우는 BMS 7 이상이며, 암소는 BMS 6이상을 A로 구분하고 있음. 즉 기존의 구분에다 최상위의 지방교잡을 나타내는 H를 첨가한 것이다.

〈캬돌센터의 사업목적에 대하여〉

고령화 및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송아지 생산성 향상과 통일적인 사양관리에 의한 송아지 생산가격 저하 등 상품성의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번식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축산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3페이지 : 송아지 구입시 구매자가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화우등록협회에서 거세우와 암소에 대한 표준발육치를 기록하여 놓았다.

〈송아지 일령별 체고 발육기준(평균치) : 전국화우등록협회〉

일령	암소	거세
230일	107.3㎝	109.9㎝
240일	108.2㎝	111.0㎝
250일	109.1㎝	112.0㎝
260일	109.9㎝	113.0㎝
270일	110.8㎝	113.9㎝
280일	111.5㎝	114.8㎝
290일	112.3㎝	115.7㎝
300일	113.0㎝	116.6㎝
310일	113.7㎝	117.4㎝

○4~5페이지 : 흑모화종에 있어서의 유전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인자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질병에 대하여 설명하고 소의 유전자병 표시방법에 대한 것 및 종모우 명부 표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별한 대처가 필요 없는 유전성질병	
병명	멜라닌세포자격호르몬수용체	히가시 증후군
표시	MSHR	CHS
원인	흑모화종의 모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호르몬수용체유전자의 결손	지혈이상은 혈소판기능의 이상에 의한다. 또한, 체모의 담색화, 적안은 멜라닌과립 이상에 의한다
증상	전신에 이모색인 적모가 나타나서, 갈모화종과 비슷하게 보인다. 흑모화종으로서 품종의 특색을 방해하는 불량형질이기 때문에 등록은 할 수 없지만, 즉시 사망하지는 않는다.	지형부전(타박상이나 거세시 피가 잘 안멈춘다.), 지혈, 분명한 지육불량, 체모의 담색화 적안등 증상이 보이지만, 발병율은 다른 유전병보다 낮다.
진단	전식이모색, 유전자진단	유전적진단, 혈액검사에서 호산구의 이상과립 확인
치료법	없음	지혈제의 투여나 수혈이 유효
경제적 손실정도	적음(단지, 등록불가)	적음
등록의 규제	수컷의 등록상 제한은 아니지만 등록신청우는 미리 유전자질병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않된다.	
현내에서의 대응 [종모우 조성]	정상우만 (04.8.7 이후등록심사신청우)	정상우만 (01.10.19생 이후)
[공용 종모우] (현내종모우협회협의)	호모유전자를 가진 소만 도태 (04.8.9 총회)	호모유전자를 가진 소만 도태 (01.10.10 역원회)

	※ 특별한 대처가 필요한 유전성 질병			
병명	밴드 3 결손증	제13인자 결손증	크로틴 16결손증	소 모리프틴 보효소 결손증
표시	B3	F13	CL16	MCSU
원인	적혈구의 막을 조성하는 단백질 밴드3의 결손	혈액을 응고시키는 제13인자 결손	상피세포를 조성하는 단백질 크로딘16의 결손	모리프틴보효소 유전자의 결손
진단	유전자 진단	유전자 진단	유전자 진단	유전자 진단
치료법	없다	없다	없다	없다
경제적 손실정도	크다	크다	크다	크다
등록의 규제	수소는 등록상 제한 있음 (정상우 이외에는 등록불가) 암소는 등록상 제한 없음			
현내에서의 대응 [종모우 조성]	정상우만 (98.7.2생 이후)		정상우만 (99.7.2생 이후)	정상우만 (02.8.12생 이후)
[공용 종모우] (현, 종모우협회협의)	호모유전자를 가진 소, 보인자는 도태 (98.6.21 총회)		호모유전자를 가진 소, 보인자는 도태 (01.1.16 총회)	호모유전자를 가진 소, 보인자는 도태 (02.8.12 역원회)

병명	증 상
B3	대부분은 출생후 기립불능, 빈혈, 황달, 허약으로 사망한다. 살아남아도 만성빈혈, 발육불량이 된다
F13	대부분은 출생직후에 제대출혈과 복강내 출혈과다으로 사망한다. 살아남아도 혈변, 혈종을 반복하며 거의 1년이내에 불량우가 된다.
CL16	신장의 형성부전의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다. 사산 또는 생시체중이 저체중, 출생후 발육불량, 발굽의 이상발달, 요독증으로 사망. 증상의 정도에 따라 송아지 경매후에 발병 할 수도 있다.
MSCU	생후 2개월 이전부터 신장의 장해에 의하여 발육지연이 일어나, 발병한 송아지는 7~8개월령에 거의 죽는다.

※ 특별한 대처가 필요한 유전성질병이란 나라에서 「유전성질병전문위원회」에서 특히 경제적 손실이 큰 (①발병율, 치사율이 높다, ②질병 중독(重篤), ③치료법이 없다), 질병으로서 배제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된 유전병을 말한다.

※ 특별한 대처가 필요한 4개의 유전병 (B3, F13, CL16, MCSU)의 보유 종모우를 정상 암소에 교배하는 것은 가능해도, 유전병의 인자를 가능한 한 빨리 번식암소집단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태어난 암송아지는 번식암소로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일본에서는 근교계수가 높아짐에 따라 유전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개체(●)와 그렇지 않고 정상인 유전자를 소유하고 있는 개체(○)를 ○와 ●로 표시하여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로 표시하였으며, 열성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개체는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다.

현재 흑모화종에서 유전자 진단이 가능한 유전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소유전병의 표시에 대하여〉

육용우의 유전병은 거의 300종류가 있다고 말해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경제적 손실이 큰 질병에 대하여 연구되고 있습니다.

유전병진단기술이 확립된 유전병은 나라의「유전성질병전문위원회」에서 협의, 검토된, 특히 경제적 손실이 커 배제해야하는 유전병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처를 필요로 하는 유전성 질병」으로 인정하여, 수소는 등록협회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 지금까지 5종류의 유전병이 공표되었으며 송아지 경매시장 명부의 공용종모우 명부에 유전병의 보유인자 상황을 표시하였습니다.

• 종모우 명부의 표시방법

명호, 등록번호, 점수, 부,모, 외조부, 외증조부, 생산지, 사육장소, 소유자, 소유구분, 검정성적, 육종가(지육중량, 배최장근단면적, 피하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유전병의 유전인자 보유 유무(보유(+), 정상(-)로 표시)등을 표시하여 종모우 선별시 지침으로 제공하고 있었음.

• 유전병 보유현황의 표시

정상우는 「-」, 보유우는 「+」, 미검사우는「미」로 표시한다.

○6~13페이지 : 90두의 종모우 능력 및 육종가 후대검정 성적, 생산지, 혈통, 유전병 검사여부 및 유전병 원인인자의 보유유무에 대하여 표시

○14페이지 : 종모우별 출장두수에 대한 총괄표를 작성하여 각 종모우별 암소와 거세우에 대한 출장두수를 표시하여 놓았다.

○16페이지 : 경매 1일차 종모우별 출장두수를 표시

○18~120페이지 : 일자별 출장하는 거세우와 암소에 대하여 입장번호, 모 등록구분, 명호, 기대육종가(체중, 배최장근단면적, 피하지방, 근내지방도) 성별, 본원자격(유전병 인자 보유 여부) 생년월일, 산차, 일령, 부, 외조부, 외증조부, 모 등록번호, 모 점수, 생산자 주소, 성명, 개체등록번호, 수정사 번호 및 출장시 체중과 가격, 구매자 기록란을 두고 있다.

○121~뒷면 : 공항버스 시각표, 구마모토 공항행 급행버스 시각표, 고속도로IC에서 행사장까지의 안내도, 교통안내도 및 구매자 주의 사항 및 구매 안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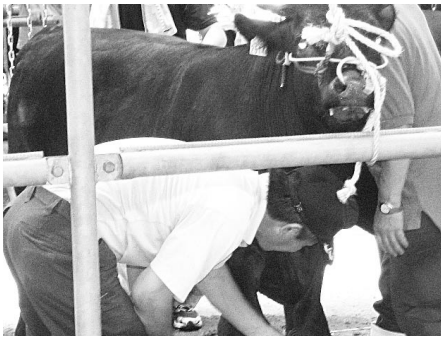

그림 10. 경매전 열심히 손질하고 있는 모습

그림 11. 경매장으로 이동하는 경매우

【경매장 관람】

우리나라의 농협에 해당하는 전농에서 경영하는 경매장은 4일간 1,672두가 출품하여 각 일자별로 약 420두 정도가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가 방문한 날은 경매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이었다. 이날은 날씨가 무척 뜨거운 날이었는데 경매장에 들어서자 출하자들은 모두 물을 떠다가 소의 엉덩이와 그 밖의 부분을 깨끗이 닦아 주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로 분주해 보였다. 그런 와중에 대부분의 농가는 송아지의 뒷발을 한손으로 잡고 닦아 주는 모습을 보고 사양관리에 있어 한우와 화우와의 차이점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우는 소의 뒷발을 만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질 수도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비하여 화우는 농가에서 그만큼 많이 순치하고 소를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였다. 경매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농가의 표정은 매우 의연해 보였다. 〈그림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매장에 출품한 소들은 거의 모든 출품우가 살이 찌고 말라 있는 개체는 없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번식우를 번식우답게 기르려면 어려서부터 살이 찌면 안 된다는 생각에 등허리에 등뼈가 보이고 갈비가 다 보일 정도로 제한급여를 실시하였고, 거세 비육우는 어려서 살이 찌면 비육말기에 비육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제한급여를 실시하였으며 지금도 어느 농가든지 대부분 그렇게 송아지를 관리하고 육성기를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시찰에서는 일본 농가의 송아지 관리요령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매우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시찰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도 일본과 같이 송아지 때 어느 정도는 잘 먹여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특히 일본 경매 송아지를 살펴보면 송아지가 살이 쪄도 배합사료에 의하여 살이 찐게 아니라 송아지 때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먹고 여기에 적당한 배합사료를 급여하여 몸을 만든다는 것이 번식농장을 바라보면서 느낀 점이었다.

일본의 경매시설 역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경매장은 처음에 들어가면 계류시설이 있고 계류시설에는 출품번호표가 있어 미리 받은 출품번호에 출품할 소를 계류하고 경매 전까지 물을 급여할 수 있고 손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경매가 시작되면 레일을 따라 경매장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때에는 위에 레일을 고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쉽게 목적하는 데로 소유주가 송아지를 이끌 수 있고 경매장 입장 전에는 출품우의 체고와 체중을 측정하여 측정된 체중과 체고는 경매시에 응찰자들에게 측정된 체중과 체고를 제시하여 응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송아

지 가격은 미리 배포된 경매명부를 참고로 하여 응찰자가 소 값을 미리 예상하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일본의 경매시장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축협 직원과 중개인, 인공수정사가 미리 그 경매우의 내정가격 즉 최저가격을 정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내정가격을 정하여 두고 그 가격이하로 경매가 이루어지면 유찰이 되어 그 송아지는 다시 주인이 가져간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구매를 하여 주기도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정가격 없이 경매를 실시한 후에 축주가 경매가격이 너무 낮아서 팔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경매가 이루어진 것은 무효가 되어 구매자와 판매자의 견해를 상호 존중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찰후기

4박5일 일정으로 실시된 이번 시찰은 일본에서도 최남단에 위치한 혼슈현의 후쿠오카지역과, 구마모토지역, 가고시마지역의 축산을 돌아보며 우리나라보다 앞선 일본농가의 실상을 볼 수 있었다. 일본은 우리보다 산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0~20년을 앞서 간다고 하는데 그런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축산업의 현주소는 어떤 것인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등등 많이 궁금하였다.

일본은 오래전에 쇠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되어 외국에서 수입육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일본의 소비자들 역시 값비싼 화우고기보다는 비교적 값이 싼 외국산 수입육을 많이 먹고 있을 것인데 어떻게 화우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이들의 생존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하였다.

우선 시찰에서는 번식농가와 비육농가 분뇨처리장, 판매장, 경매장등 화우산업과 관련된 모든 곳을 다 보았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었다. 일본은 시스템 적으로 생산에서 유통·판매가 투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소비자나 생산자간의 상호 신뢰가 구축이 되어 있었다. 또한 화우산업 내에서도 번식농가에서 생산하는 송아지는 믿고 비육농가에서 구매를 하여 주었으며 비육농가 역시 비육한 소는 정확하게 유통이 이루어져 소비자가 신뢰를 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번식농가와 비육농가에서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었으며 번식농가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그들은 "우수한 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좋은 조사료가 필요한데 조사료 수급이 가장 어렵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며 비육농가에서는 "우수한 쇠고기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우리는 우수한 쇠고기만을 생산하면 판매는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였다. 또한 이들은 화우산업의 전체적인 전망을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화우산업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화우고기를 찾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이며 수입육이 얼마든지 수입된다고 하여도 화우산업의 경쟁력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듣고 일본인이 이렇게 자신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았다. 그것은 상호간, 산업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고 그 산업에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기를 생산하면 화우산업의 전망은 밝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한우산업도 일본의 화우산업 못지 않게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각자의 업무를 충실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